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임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12. 21	12. 25	12. 28
대 표 기 도	최종열 성도	김복자 권사	정환영 형제
성 경 봉 득	최종열 성도	김복자 권사	정환영 형제

교회소식

-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온라인 현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 대강절 : 예수님의 성탄을 묵상하는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 달력 배부 – 2026년 달력을 한 부씩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이수현 집사 헌물)
- 성탄 축하 예배 – 25일(목) 오후 2시 찬양예배로 드립니다.
- 목회자 모임이 16일(화) 12시 함부르크에서 있습니다.
- 나눔의 시간 – 김복자 권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교우동정

생일	정이령 자매 김대철 형제
한국 방문	류현석 형제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합계(Euro)	
온라인헌금(12월)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롬12:15)”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온라인 현금 안내
예금주 : Jin Soon Chung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홈페이지 : 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3. Advent

*찬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Gemeindelied	118장	다같이
기도 Gebet	-----	이예준 형제
성경봉독 Predigttext	눅 2:8 - 14(신p89) (Lukas 2:8-14)	이예준 형제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설교 Predigt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	이상호 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나의 영원하신 기업(1,3절)	다같이
*축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섬김입니다”

† 현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현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봉사자와 청년 섬김이들, 청년들의 진로(진학, 취업, 결혼)을 위해
2.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
3. 황희순 집사님, 백승민 자매, 주돈혁 형제에게 회복의 은총이 임하도록
4.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5. 김선택, 장보경(헝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거룩한 삶에 대한 애통함!

1984년에 세상을 떠난 프란시스 쉐페 박사님을 기억합니다. 쉐페 박사는 말년에 암으로 투병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암과 처절하게 싸우면서도 아픈 몸을 이끌고 캠퍼스 사역에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사랑했던 젊은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최후의 메시지를 피를 토하듯이 외쳤습니다. 그가 외친 내용을 들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의아한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이러했습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행복은 구하지만 거룩함은 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프란시스 쉐페 박사님의 메시지는 미국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축복과 행복은 구하지만, 거룩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천 젊은이들은 꿈과 비전은 구하지만, 거룩함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꿈과 비전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복과 축복이 우선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해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 고경환 목사(순복음 원당교회 담임)

소 모임을 위한 질문

1. 취업난, 관계 압박, 성과 스트레스, 비교 문화 속에서 복음이 실제로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가?
2. 사회적으로도 예수 믿는 청년으로서 평화의 통로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